

▶ 달러/원 주간 전망

• 美 역사상 2위 규모 SVB 은행 파산 여파 어디까지

서울, 3월1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위험 회피 확산 정도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긴축 경로 전망에 따른 달러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으며 높은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00-1,350원이다.

미국 2월 고용 지표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를 조금 덜어냈다. 예상을 웃돈 취업자 수보다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 둔화와 실업률 상승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3월 연준의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조금 낮아졌다. 미국 선물시장에서 3월 연준 '빅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은 70%대에서 40%대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미국 내 16위 규모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초고속 파산에 따른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파장이 금주 국내외 금융시장을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채권 포트폴리오 손실을 막기 위해 증자를 모색했지만 SVB는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으로 시장은 당분간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위험을 저울질하며 살얼음판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서에서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고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이번 위기가 대형 은행 등 금융권 전반으로는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번 파장이 중소 은행의 예금 이탈을 가속할뿐더러 전 세계 금융권과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리스크 심리 확산 강도 따라 위험 자산과 통화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강달러에 약세 변동성을 대거 키워 온 원화가 위험 회피와 이로 인한 증시 조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타이트한 외환 수급 사정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원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금주 원화는 외인 주식 매매 동향 따라 방향성과 변동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는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2월 소매판매 등 연준 금리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1~2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 투자 지표를 통해 리오프닝 기대를 재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도 관심의 대상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3월13일(월)

- ⊙ 관세청: 3.1~10일 수출입 현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수출투자책임관 회의 (09: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10:30)
-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시 주최 런던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금융중심지 IR 실시 (12:00)

3월14일(화)

- ⊙ 한국은행: 2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12:00)
- ⊙ 금융위원회: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14:00)
- ⊙ 한국은행: 2.23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3월15일(수)

- ⊙ 통계청: 2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 한국은행: 1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3월16일(목)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3월호) 발간 (10:00)
- ⊙ 금융감독원: 20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 (12:00)
- ⊙ 금융감독원: 2023년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15:00)
- ⊙ 기획재정부: '23.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00)

3월17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금융감독원: 2023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10:00)
- ⊙ 기획재정부: 2023년 3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기획재정부: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19: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3월13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3월13일	23:00	미국	고용추이	2월		118.75
3월14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2월		90.30
3월14일	21:30	미국	CPI MM, SA	2월	0.4%	0.5%
3월15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YTD)YY	1~2월	4.0%	5.1%
3월15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1~2월	2.6%	1.3%
3월15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1~2월	3.4%	-1.8%
3월15일	19:00	유로존	산업생산 MM	1월	0.5%	-1.1%
3월15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3월10일 주간		201.5
3월15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3월		-5.80
3월15일	21:30	미국	PPI MM	2월	0.3%	0.7%
3월15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2월	0.2%	3.0%
3월15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3월		42
3월16일	08:50	일본	기계류 주문 YY	1월		-6.6%
3월16일	08:50	일본	수출 YY	2월		3.5%
3월16일	08:50	일본	수입 YY	2월		17.8%
3월16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2월		-1.5%
3월16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2월		1.339M
3월16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2월	1.310M	1.309M
3월16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2월	-0.3%	-0.2%
3월16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2월		0.8%
3월16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6일 주간		211k
3월17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2월	0.4%	0.0%
3월17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3월	67.5	67.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3월13일 (월)

- ⊙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3월14일(화)

- ⊙ EU 재무장관회의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독립지역은행가협회 행사에서 美 은행시스템 현대화 관련 연설 (15일 오전 6시20분)

3월15일(수)

- ⊙ 일본은행(BOJ) 1월17-18일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오전 8시50분)

3월16일(목)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3월 제조업 전망 서베이 결과 발표 (오후 9시30분)
-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 발표 (오후 10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10시45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미국 인플레이션

오는 14일 발표될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이달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표에 계속 나타날 경우 당초 예상보다 금리를 더 높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2월 CPI 상승률이 전월비 0.4%로 1월 0.5%보다는 약간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년 동월비 상승률도 6.4%에서 6.0%로 둔화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 중국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오는 15일에는 중국의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된다. 춘제 연휴 영향을 고려해 1~2월 수치가 함께 발표되며, 중국 경제 리오프닝 영향에 작년 12월보다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1~2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비 3.4%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 12월에는 1.8% 감소한 바 있다.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2.6%로, 작년 12월의 1.3%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1~2월 고정자산투자는 4.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1~12월 증가율은 5.1%였다.

⊙ ECB 금리 또 50bp 인상 전망

유럽중앙은행(ECB)은 작년 7월 이후 금리를 2.5%까지 총 3%포인트 인상했으며, 오는 16일 정책회의에서 50bp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유로존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5.6%로 1월의 5.3%보다 가속화돼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향후 네 차례 회의에서 각각 50bp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장은 연말 금리가 4%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달 초 모간스탠리와 BNP파리바도 ECB 금리 고점을 4%로 예상했다.

⊙ 영국 예산안

영국은 오는 15일 예산안(Spring Budget)을 발표한다.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대규모 세금 인하 또는 지출 확대를 꺼리고 공공 재정을 타이트하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레이더들은 예산안과 별도로 발표되는 GDP 성장률 및 부채 전망도 주시하고 있다.

공공 부채가 정부 예상보다 줄면 헌트 장관이 공공 노동자 임금 인상률을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높일 가능성이 있다.

영국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물가 급등에 따라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 **신흥국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듯**

연방준비제도가 최고 6%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신흥국 경제는 고금리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에 앞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연준보다 먼저 완화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브리엘 스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신흥시장 리서치 대표는 국내 인플레이션율이 충분히 떨어지고 있어 중앙은행들이 '피벗' 계획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헝가리, 폴란드, 칠레, 브라질 등이 곧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에 따라 인하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

귀도 차모로 픽텟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신흥시장 완화 물결이 밀려오고 있지만 시장 예상만큼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연준보다 훨씬 앞서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시장진단)-리스크 오프에 흔들리는 원화... 주요 저항선 근처에서 아슬아슬

서울, 3월1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작년 11월 말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방향을 결정할 미국 2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결과를 앞두고 주간실업수당 청구건수가 5개월래 최대폭 증가해 미국 국제 금리와 달러는 밀렸다. 하지만, 미국 은행주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달러/원 환율은 이날 오전 연고점을 새로 썼다.

가상자산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가 재정난으로 청산을 선언한 이후 스타트업 전문은행 SVB파이낸셜그룹까지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자 금융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확산됐고, 이에 뉴욕 주요 3대 주가지수는 크게 조정 받았다.

10일 오전 코스피는 1%대 하락 중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2천억원대를 팔아치우며 순매도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전날에는 1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미국 국제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원화가 이제는 위험회피로 촉발된 외인 자금 이탈까지 더해져 약세압력을 한층 높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 심리, 수급, 펀더멘털 삼박자가 가리키는 환율 방향

중국 리오프닝 기대 따라 원화가 울고 웃기를 반복하지만 현재로서 중국 재료는 원화의 상승 변동성만 자극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달러/위안은 7위안을 다시 가시권에 두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 여부가 원화의 핵심 변수인건 당연하지만, 리스크 오프 확산에 따른 국내외 증시가 크게 조정받는다면 달러/원 환율의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이머징 통화는 주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크다. 간밤 달러지수가 밀려도 역외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올랐다"고 말했다.

대외건전성 핵심지표인 경상수지가 1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점도 경계할 수밖에 없다. 1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가 2월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외환수급 악화 여건 속 원화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과거처럼 역내 수급사정이 달러 공급 우위가 아니다보니 외인 증권자금 따라 원화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환노출 정도가 채권보다 훨씬 높은 주식자금 이동이 확연할 때는 더욱 그렇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을 1월(+6.2조원)과 2월(+1.2조원) 순매수했지만, 3월 10일 오전 기준으로는 3천억원 상당 매도 우위다.

현재 달러/원 환율은 120일(1,327원)과 200일(1,320원)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주요 저항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다만 미국 2월 고용지표 결과 따라 이 저항선을 의미있게 돌파한다면 다음 저항선은 1,350원선으로 훌쩍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펀더멘털이나 수급이 좋지 않은 게 확인되고 있다. 원화가 이제는 리스크 오프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는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선임연구원은 "원화가 움직임이 달러보다 과도한 데는 원화를 지탱할 고유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인데,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출과 수출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화가 과매도 구간이라는 판단은 유효하나 현재의 경기 펀더멘털과 원화 변동성을 고려할 때 달러/원 환율 상단을 1,350원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1.71%, 유로화 +0.10%, 엔화 +0.65%, 위안화 역내 -0.28%, 달러지수 +0.07%
- 국내 주가: 코스피 -1.54%, 코스닥 -1.72%
- 미국 주가: 다우존스 -4.44%, 나스닥 -4.71%, S&P500 -4.55%, 러셀2000 -8.07%
- 국내 국고채(레피니티브 호가): 3년 -9.3 bps, 10년 -19.4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11.6 bps
- 미국 국채: 2년 -27.3 bps, 10년 -26.8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89.3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3.77%, 금 선물 +0.70%, 레피니티브/코어커머리티CRB지수 -3.57%